투데이 칼럼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서 영 성
산림청 무주국유림 관리소장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12월 15일)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 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 주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 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사 설

민심의 선택은 정권 심판

민심의 선택은 정권 심판이었다.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의 모습으로 결정되면서 국정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집권 3년 차에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가 취임 초부터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도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도 다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과 임명동의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주요 국정 과제도 관철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국회 의석(300석)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 된다.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200석을 넘지 못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여전히 가능하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p) 차이로 패한 거대 야당은 사사건건 대통령 정책에 발목을 잡았다. 대통령도 야당에 손을 내밀지 않으며 '강 대 강' 대치만 반복됐다.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은 것은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꼽힌다.

대통령의 활발한 외교 활동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삼각 동맹이 강화됐고, 30조원이 넘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성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민 고통이 여전하다. 정부는 사실상 궤멸 상태다.

무너진 보수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개헌과 탄핵의 저지선을 겨우 지키며 300석 가운데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보수정당이 연거푸 총선 참패를 당한 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다.

등 돌린 민심은 여전히 냉담했다. 여당은 이제 누구를 간판으로 내세워야 할지 막막한 처지다.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를 외면하고, 국민과 공감하지 못했다. 통합은커녕 이념 갈등을 부추긴 동안 보수는 최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수적 열세에 개의치 않았다. 거부권을 9차례 꺼내며 강 대 강으로 맞붙었다. 오만은 비판과 여론을 차단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측근을 감싸며 인적 쇄신에 거리를 뒀다. 여야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만 18명에 달한다. 기자회견은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대국민 메시지에 주력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때도 장관·경찰청장을 경질하지 않고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고 중에 하나인 것처럼 대했다. 경제와 민생, 고물가는 선거를 앞둔 민심의 요구였다.

대통령도 참모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도 '박절하지 못했다'며 감싸기에 급급했다.

피의자 신분 호주 대사를 '문제없다'고 출국시키는 모습은 독선적인 검사 리더십의 단면에 불과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은 최후의 승부수였다. 하지만 정치적 한계가 뚜렷했다. 선거 전략은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했고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도 실패했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범죄자', '쓰레기' 구호에 꽂혀 중도 확장은 뒷전이고 해묵은 보수 결집만을 외쳤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이렇게 가면 총선 대패할 것'이라는 경고를 줬는데도 정부·여당은 바뀌지 않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청소년 도박 NO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문제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학교 폭력·갈취 등 2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하고자 국민체감 약속5호로 지정해서 사이버 도박등 척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도박이 확산되는 이유는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졌다.

특히 SNS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광고들을 쉽지 않게 접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불법 사이버 도박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쉽게 눈치챌수 없다는 것이 가장큰 문제로 부모님이 먼저 사이버 도박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중요하고 알아야 도와줄수 있다.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종류로는 바카라, 용호, 파워볼, 로하이, 달팽이 레이싱, 그래프게임, 사다리 게임, 스포츠 토토등이 있다.

도박문제 발생 징후로는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집안의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본인의 물건을 팔거나 잃어버렸다고 하는 행위, 스포츠 경기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친구, 선후배 간 금전거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의 행동에서 위의 변화들이 생겼다면 도박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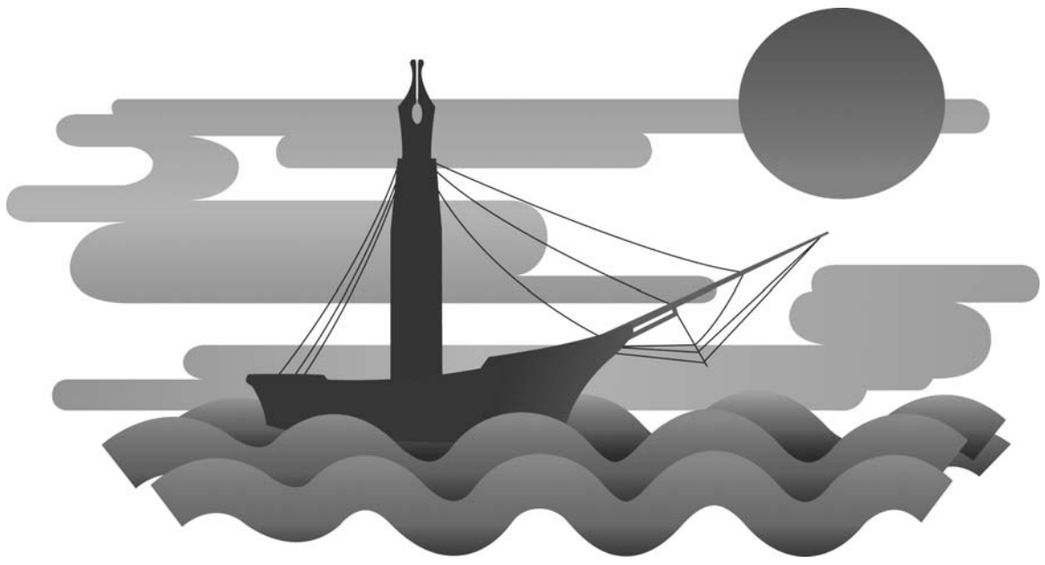
우리 경찰에서도 관내 진출하여 범죄예방교육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소년도박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범죄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다.

정태철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UN 사무총장, 수단 내전 종식 촉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수단 내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 사이의 내전 종식을 촉구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